

부활, 사랑 없이는 다가올 수 없는 신비

구 요비 (욥) 신부

2012 년 1 월에는 서울 대신학교의 연구과생들의 영신수련 한 달 피정을 동반하며 지냈습니다. 40 여 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10 여 년 간 규칙적인 생활로 ‘기도하며 일하라(ora et labora)!’는 베네딕토 성인의 모토를 살아서인지, 지난 7 년간 신학교 영성지도 신부 생활로 다져져서 인지, 아침 일찍 성체조배 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날 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롭고 은혜로운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김훈 소설가의 『흑산(黑山)』을 읽으면서, 영신수련 피정 중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묵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다가왔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완성해야 할 일을 기도 안에서 찾았기에 수난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의연하시고 당당하시며, 침묵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수난기에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반,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넘기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하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며 반역의 깃발을 드는 장면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제시하시는 오관을 활용한 관상기도에 머무르며, 얼마나 자주 우리들이 이 못나고 뻔뻔한 제자들, 우둔하고 잔인한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락하고 타락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경숙 소설가는 『엄마를 부탁해』에서 로마 성 시스틴 대성당의 피에타 상에서 당신이 찾고 있던 실종된 어머니의 존재와 생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들을 끌어안고 슬퍼하시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 안에 면면히 흐르는 효성(孝性)을 ‘엄마를 부탁해!’라는 호소로 현대인들을 일깨워 줍니다. 요한복음의 바로 이 부분을 읽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계심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돌보아다오!’라고 부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분은 당신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인류의 어머니로 주십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군중들의 배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들,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수난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독하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무섭고 삼엄한 로마 병정들의 잔인성 앞에서도 의연하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사랑 안에 죽음을 넘어서는 새 생명의 새벽빛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보상도 없는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삶일지라도, 아무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고수하고 견디어 낼 때, 이 사랑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은 사랑 없이는 다가올 수 없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모곡 생활 유감(有感)

이 두희 미카엘

아내 헬레나로부터 구요비 신부님께서 저를 모곡 참제자 마을로 가서 있어 주기를 바라신다는 뜻을 전해 들었을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미 저승 문 앞에 가까이에서 있는 이 늙은이를 불러 주시는 신부님과 참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예!”하고 선뜻 대답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첫째는 제 능력으로는 ‘참제자마을’에 도움이 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자격지심이었고, 다음은 신정동 본당 공동체를 떠나기가 싫어서였습니다. 제가 6·25 사변 때 월남하여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말하자면 제 2의 고향이니까요. 근 20년 살아오면서 본당 소공동체-단체들 안에서 업히고 설키면서 쓴 정과 단 정을 나누던 이들과 헤어짐이 저를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자격도 없이 대자를 여러 명 둔 데다가, 세례 후에 주일 미사 참례마저 안하는 대자도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주춤거리게 하였습니다. 신정동 교우들이 저희 부부를 잘 대접해 준 것이 탈이 된 셈입니다. 결국, 신부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서도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잘 살 줄 몰라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사를 여러 번 하는 바람에, 그때마다 살림 도구를 줄여야 했는데 다행히 신정동에서는 같은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자연히 불어나게 되어서 이번에도 또 버려야 할 물건들이 생겼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못 되도 우선 내 침대, 서가, 식탁, 의자, 옷장, 화장대, 냉장고, 세탁기 따위 들은 딱지를 붙여서 버리기 쉬우나 여러 해 동안 정이든 늙은 애완견은 대책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저희 부부의 유일한 취미생활이 집안과 옥상에서 가꾸어 왔던 화분들 중 작은 것들은 친한 분들이 와서 가져갔지만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직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버린 물건들이 필요한 경우가 닥치면 어찌지?’ 하는 근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참제자마을에 오면서 내 나뭇대로 소명, 또는 성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마저 버리고 낯선 이방으로 떠나라는 하느님의 소명에 순명한 성조 아브라함의 결단이나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라는 주님의 한 마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도들의 용단이 얼마나 거룩한 행위였는가를, 또한 오늘 날에도 장래가 보장된 환경의 젊은이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일생을 봉헌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에 비하면 하찮은 쓰레기 같은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안달하여 온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여 온 것인가를 여든 살이 되어서야 어렵듯이 깨닫게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내가 놀란 것은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녀 노인들이 아직도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제까지 제가 추구하여 온 안일한 생활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이곳에서 며칠 동안 혼자 생활하다 보니 참제자마을 주위의 자연환경에 마음이 쏠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봄의 선구자라는 진달래꽃은 자취를 감춰가고 여기저기 알맞게 자생하는 고운 꽃으로 아름답게 숲의 조화를 이뤄주던 산벚마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이때에 맞춰 옆에 있는 과수원의 배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데, 순 흰색의 배꽃은 진달래나 산벚과는 아주 다르게 청순한 이미지와 아름다움을 함께 발산합니다.

여기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여러 종류의 새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어둠이 짙어지면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고, 문득 숲을 스쳐가는 거센 바람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작은 못에서 질러 대는 개구리들의 고함소리, 숲 속에서 홀로 우는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쳐다봅니다. 서울 하늘에서 보다 한결

밝게 빛나는 별, 제가 잠을 자다 눈을 뜨니 창 밖으로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보여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듯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봉사, 희생과 희사가 쌓인 결과인데 영똥하게도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제가 따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임승차한 기분입니다.

저는 참제자마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앞으로도 맞서 올 어려움들을 회원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참고 서로 도우면서 극복하여 나아가는 중에 이 작은 공동체가 성장 발전하여 이곳을 거쳐 가는 모든 이가 더욱 성화되어 주님께 감사하며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 날이 어서 오기를 밤마다 기도드립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신부님과 참제자 공동체의 형제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제자마을’을 돌보시고 손님들을 맞이해 주실 관리장으로, 1980-90년대에 구로1동성당 사무장님으로 봉직하신 이두희(미카엘) 형제님과 부인 이동무(헬레나) 자매님이 모곡 ‘피정의 집’에 상주하십니다. 두분의 헌신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청평까지 40 분, 청평역→청평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로 20 분, 청평→모곡 한서중학교 앞까지 40 분>

서울(상봉, 청량리, 용산)-청평				청평-모곡	시 간	모곡-청평	청평-서울(상봉, 청량리, 용산)			
열차				버스		버스	열차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전동열차	ITX 청춘	전동열차	ITX 청춘				전동열차	ITX 청춘	전동열차	ITX 청춘
10 42 58		30 59			05		42			
10(마) 27 43 58		28 56	00(용) 45(청)	06:40	06		02 20 50		07 43	39(용)
15 35 46(평)		27 49	00(용)		07	07:40	04 20 35 50	09(청)	03 33 58	09(청) 39(용)
03 17 38(마) 58	45(청)	12 37	00(용) 45(청)		08		04 36 50	09(청)	21 50	39(용)
15 40	45(청)	02 27 59	00(용) 45(청)	09:10	09		08 27 51		16 43	09(청) 39(용)
04 27 50		15 40	00(용) 45(청)		10	10:10	13 40		04 28 51	39(용)
15 40		06 32 57	00(용)	11:20	11		05 28 52		21 46	09(청) 39(용)
03 28 50		27 45	00(용) 45(청)		12	12:20	15 40		09 33 58	39(용)
15 40		12 35 59	00(용)		13		02 27 51		22 51	09(청) 39(용)
06 31 58		27 55	00(용) 45(청)		14		14 44		14 43	39(용)
17 40	45(청)	15 42	00(용)		15		07 36 58		03 28 52	09(청) 39(용)
07 32 58		06 31 56	00(용) 45(청)	16:30	16		22 44		17 46	39(용)
27 47		27 48	00(용)		17	17:30	11 34 58	09(청)	11 39 58	09(청)
06 28 44	45(청)	10 37	00(용) 45(청)	18:40	18		13 28 51	09(청)	21 50	39(용)
00 14 35 56	45(청)	03 29 52	00(용)		19	19:30	13 40 56		16 43	09(청) 39(용)
11 28 47		15 40	00(용) 45(청)		20		16 44		03 28 51	09(청) 39(용)
07 28 51		06 31 56	00(용)		21		03 23 44	09(청)	20 44	09(청)
12 37 52(평)		27 45	00(용) 45(청)		22		02 23 44		13 33 58	09(용) 39(용)
06 30(마) 55(평)		10 30(평)			23		01 22 42(평)		22 47(평)	09(청)
					24		02(평)			
상봉→청평. (용)=용산 (청)=청량리. (마)마석종점						청평→상봉, (평)=평내호평 종점				

● 2012년 1월-4월 후원 봉헌금 현황

월	기존회원	신입회원	금액
1	61	7	15,693,000
2	68	6	14,237,520
3	77	10	29,110,000
4	75	11	17,370,000

<참 제자 마을 후원 봉헌자 명단> -가나다 순

2012년 2-4월 신입 : 강용식 <1월 추가>

김이순(모니카) 이종규 정명자(세실리아) 정미자(데레사)
정혜숙(레오나) 홍영숙(림바니아) <2월 6명>

김덕자(요안나) 김영숙(임파) 김인순(데레사)

박기흥(프란치스코)/신상우(글라라) 이희수(사도요한)

임경옥(베로니카) 장영재(요셉) 채승용/권영주 <3월 10명>

김원란(데레사) 김종찬 양연숙(희순루치아) 손미경(세실리아)

오나경(세실리아) 이석주(가브리엘) 장은미(올리안나)

최지영(토마스)/백순자(로사) 한경준(파스칼) 허관욱(사도요한)

<4월 11명>

전기-조명 봉헌 : 문영준(야곱) <1명>

가전제품 봉헌 : 허관욱(사도요한) 홍영숙(림바니아) <2명>

썩크대 봉헌 : 최원철(베드로)/윤기연(아네스) <2명>

성물 봉헌: 김영수(베드로) 김문혜(안젤라) 김문희(엘리사벳)

김원란(데레사) 김정숙(베로니카) 김종규(요셉) 김종찬

김현숙(루치아) 나희균(크리스티나)

박기흥(프란치스코)/신상우(글라라) 박덕관(안드레아)

성필규(마르타) 성하영(프란치스코) 손미경(세실리아)

신정숙(로사리아) 안여주(올리엠티아)/한경주(파스칼)

오나경(세실리아) 윤여정(루카)/박명숙(마리아) 이승원(바오로)

정명자(세실리아) 조치성(다미아노)/김연이(데레사)

지희용(토마스아퀴나스)/김문숙(루시아) 최소자(아가다)

홍성례(데레사) 홍순분(엘리사벳) <30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 피정의 집(60평) 건립에 6억원 정도 소요되고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많은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 분들께 신규회원 가입 및 봉헌을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회원들께는 구 신부님께서 '복음 우리의 길'을 서명하여 무료로 증정합니다.

* 구요비(음) 사제 서품 30주년 글모음 '복음 우리의 길'을 17,000원(30%할인)에 공급합니다. 판매대금 전액은 피정의 집 건립 봉헌금으로 쓰여집니다.

* 모곡 피정의 집에 필요한 성모상(야외), 스테인드글래스(경당) 등에 대한 성물 봉헌자를 찾고 있습니다.

* 참 제자 마을의 목표

강원도 홍천 '피정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가톨릭 신앙의 깊은 영성을, 슈브리에 신부님의 길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건강한 공동체

* 참 제자 마을의 영성 :

삼위일체 신비와 복음적 가난의 실천

- 자기 비움
- 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배우며,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터.

- **쉼터 - 나눔의 집** ;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터

- **돌봄과 나눔의 영성적 녹지 공간**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의 터이자, 순수 자연 속의 묵상의 터.

참제자 마을 생산 농산물의 나눔과 축제의 터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2012년 성주간 행사 및 부활대축일 미사 봉헌

완공 단계에 있는 모곡 '피정의집' 경당에서, 4월 5일 성목요일(11명), 6일 성금요일(10명), 7일 성토요일(25명) 오후 8시 성삼일 전례와, 8일 오전 11시 부활대축일 미사(105명)를 봉헌하였습니다.

* 참제자 모임 회원님들 소식

-3월 27일 문수정 가타리나, 백영국 세례자요한님 모친이신 김임년 마리아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 4월 11일 오후 1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안상용 루카, 김정숙 베로니카님의 장녀 안여주 올리엠티아의 혼인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 2012년 5월 12-13일 모곡 '피정의 집' 행사.

12일(토) 저녁 성체조배 및 복음묵상-나눔

13일(일) 11시 미사

-야외 '십자가의 길' 14처 장소 찾기

-주변 환경 조성, 채소-고구마-옥수수 모종 심기

<연락처> 전화; 02-853-1104-5 팩스; 02-853-1105
핸드폰; 011-9917-4523

E-Mail : kujob@catholic.ac.kr

* 2011년 10월부터 구좌 회원제로 전환하고(1구좌당 월 10,000원), 참 제자 마을 2단계 사업인 '피정의 집' 건립을 위한 후원 봉헌금을, 일시금 납부, 약정 납부, 구좌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